

목포권

“농협철부선 비조합원 이용 못한다”

현실 무시한 단속 섬 주민 분개

신안 안좌·비금 등 ... 고향 찾은 향우들 불편 가중

목포 해양경찰서가 신안군내 섬지역을 운항하는 농협철부선을 이용하는 외부 차량을 단속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목포해경은 조합원 명단과 승용차 번호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비조합원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철부선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운차는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스도 농협철부선을 이용하지 못한 채 화물선을 통해 운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들은 “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개정이나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조합장들은 “여객선사들이 최근 물동량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관계당국에 단속을 의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상재 도초농협 조합장은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아 법개정이나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비 조합원들이 승용차를 농협철부선에 적재했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300만원을 물게 된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소방안전교육 100회 돌파

신안 2월 문을 연 목포소방서(서장 박남배) 소방안전체관 교육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안전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목포 소방안전체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예비군,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100여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유달산 등산로 훼손 심각

주요 등산로 12곳 구간 지표 침식 등 정비 착수

목포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등산로 대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최근 유달산을 비롯해 양을산, 임암산 등 도시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12개 지역 46km의 등산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출되는 5등급 이하로 밝혀졌다. 특히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등산 인구가 늘면서 도심 인근 등산로 훼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있는 유달산 후면부인 소요정~일등바위 구간 2km의 노면과 계단목을 정비한다. 또 단계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도심권 등산로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 이정표와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www.kwangju.co.kr

쌀·천일염 등 농수특산물 판매 신안 공무원들 전국 누빈다

직거래장터 8억여원 수익

신안군 공무원들이 지역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해 전국을 누빈다며 발로 뛰는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물들어 수도권 11회와 부산권 1회 등 12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직거래장터를 운영, 8억7천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연 주권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3일에는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대상그룹과 농수특산물 판매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공약을 위해 마포구청 주관, 수도권 직거래 장터행사에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같은 홍보활동으로 지금까지 신안지역 특산물 판매실적은 53억8천만원에 달한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압해대교 나들목 보행로 설치 급하다

보행자 안전 위협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압해대교에 교량과 육지부를 잇는 나들목 보행로가 없어 통행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목포와 신안을 연결하는 압해대교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보도를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했으나 교량에서 육지부로 이어지는 나들목 구간은 보행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

신안군은 지난 3월 전남도에 보행로 설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압해대교 교량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나들목 구간의 보행로 및 자전거 통행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반쪽 교통이 우려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전남도에 보행로 설치를 건의했으나 현재로는 보도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연륙교 개통과 함께 보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진도군, 지역향우 DB화 농수특산물 판매 강화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농수특산물 고객관리(CRM)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CRM센터는 지역과 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매 고객을 관리하게 된다.

진도군청 4층에 마련된 이 센터는 우선 지역출신 향우 등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화 작업이 끝나면 쇼핑몰 통합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판촉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은 농협 진도군지부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국비 등 모두 1억5천800만원을 투입,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CRM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 울들어 200척 이상 나포

목포해양경찰서

목포 해양경찰서가 한국측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수가 울들어 200척을 넘어섰다.

또 이들 나포 어선이 풀려 나면서 년 담보금도 20억 원을 돌파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에 신안군 흑산면 가가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77t 유자망어선 요영어 25513호 등 6척을 불잡았다.

이에 따라 목포 해경이 울 들어 나포

한 중국 불법어선은 203척에 달했으며 이들 나포 어선 가운데 192척이 담보금 20억2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목포해경은 지난 해 중국어선 207척을 나포했으며 징수한 담보금은 22억여 원에 이른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세관 개청 110주년 영암 신청사서 기념행사

목포세관(세관장 김성중) 개청 110주년 기념행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삼학도에서 최근 영암 대불산단지로 이전한 목포세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신축 청사에 작품을 기증한 한국 예총 목포지부 임철호 회장 및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지난 1897년 10월 1일 목포해관으로 발족한 목포세관은 1907년 1월 1일 목포세관으로 개칭된 후 올해로 개청 110주년을 맞았다.

목포세관은 현재 직원 48명, 수출입 물동량 21억 달러, 280억의 세수를 올리고 있으며 매년 수출입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국도변 국화 민방 무안 국제공항 진입로인 청계면 상미리 국도변 500여m 구간에 1천여그루의 국화 꽃이 만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무안=문준재

합동법률경매 (광주지방법원 1부) 433-7798 H.P.: 011-1770-3328. 아파트/빌라, 주택/임대/근린주택, 근린시설/상가/숙박시설, 대지/농지/임야/공장.

LCA타워(주) 072-8004, 010-7154-6886. 첨단지구 LCA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첨단월세공인중개사 072-4385, 011-604-8205. 급매매, 임대, 임대. 임대보증금 1100평 주 상 북향시설향화.

부광공인중개사 062-654-4520, 010-2629-1718. 전원주택(부지) 전문업소. 전원주택단지 분양.

특급상가 매매·임대. 전대후론 노래방 215㎡ (65평). BM公認仲介士事務所.

법원경매 전문회사. 법원경매매입할당권. 법원경매매입할당권. 법원경매매입할당권.